

## 누액선에 발생한 선양낭성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sup>1)</sup> 신경외과학교실<sup>2)</sup>

백정환<sup>1)\*</sup> · 손영익<sup>1)</sup> · 정유석<sup>1)</sup> · 남도현<sup>2)</sup>

누액선의 종괴는 일반적으로 염증성 질환, 임파종, 전이암, 원발상피종양의 4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원발상피종양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원발상피종양은 양성혼합종, 선형낭성암종, 선암종 등이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형낭성암종은 누액선 부위 병변의 약 4%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질병의 경과기간 및 생존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평가 및 치료방침이 확립되지 않은 질환이다. 누액선 부위에서 발생하는 병변은 다른 부위의 선양낭성암종과 마찬가지로 섬유조직면을 따라 원발부위 주위로 넓게 퍼져나가며 신경주위로 침윤하며, 두개기저부

의 공들을 통하여 두개침습을 하는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술과 술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수술적 치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생존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2례의 누액선의 선양낭성암종을 경험하여 안외관골 접근술(orbitozygomatic approach)을 통한 근치적 안외절제술(radical orbitectomy)을 시행하고 두개강내 종양을 일피절제 후 늑골 및 분할 두개관(splitted calvarium)과 유리피관을 이용한 결손부 재건을 시행하였던 치험례를 보고하고자 한다.